<8강 죽음과 양심 그리고 빛>

구 연상(숙명여대)

사람은 '거기'로 나가 서 있다. '거기'는 기분(氣分/Stimmung/느낌)과 이해(理解/Verstehen/깨달음) 그리고 말(Rede)을 통해 열어 밝혀진다. 사람은 '거기에 나가 설 수 있음' 때문에 마음을 졸인다. 마음졸임의 가장 큰 까닭은 사람의 나가 섬의 유한성과 비본래성 때문이다. 사람은 기분, 이해, 말을 통해 나가 설 수밖에 없다는 유한성 말고, 나가 섬 자체의 불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유한성에 마주해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바라는 '거기'는 멀어지는 대신 그 자신이 피하고자 하는 '거기'로 나아갈 수도 있다. 죽음은 '거기에 있음'의 끝으로서 나가 섬의 전체성을 드러내고, 양심은 '거기에 있음'의 본래적 모습을 들려준다. 죽음과 양심은 사람이 스스로의 있음(나가 섬) 때문에 마음을 졸인다는 사태에 근거한다. 이 두 현상에 대한 해명은 '거기에 있음'의 전체성과 본래성에 대한 증명을 위한 것이다.

■ 죽음에 대하여

'죽음 현상'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은 □존재와 시간□의 48절부터 53절까지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죽음 분석의 목적은 죽음의 현상을 현상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를 그 근원적 전체성에서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사람의 죽음을 사람의 있음의 '전체성'에 대한 현상학적 근거 제시로서 분석하려 한다. 사람의 '있음'의 전체성은 그에게 '죽음의 현상'이 본질적으로 속하는 한 '아직-아님'의 사태에 의해 거부되는 듯이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의 있음에 대한 '실존론적 분석'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도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죽음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

사람은 그가 살아 있는 한 '미처 다 살지 못한, 즉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는 살아가야 할 날들'이 '아직' 남아 있다. 죽음은 그에게 남겨진 모든 삶의 가능성을 거두어 간다. 사람의 있음의 전체성은 그의 삶에 '아직' 죽음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죽음' 이전까지의 삶은 마치 아직 못 받고 있는 **꿔준 돈**이나, 아직 만월이 되지 못한 **반달** 또는 아직 채 영글지 못한 **열매**와 같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죽음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떠맡지 않을 수 없는 '있음의 한 방식'이다. 죽음은 삶의 끝으로서 삶이 무한하지 않음, 즉 삶에 '이미' 끝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 준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에 언제나 직면해 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ein Bevorstand'로서, 즉 '우리 자신(Dasein)의 코앞에 닥친 것'으로서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코앞'(Bevor)은 결코 시간적 내지 공간적 가까움을 뜻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졸임'(念慮/Sorge)의 구조 계기로서, 즉 '자기를-앞지름'(Sich-vorweg)의 구조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죽음은 사람이 '자기를 앞질러' 나갈 수 있는, 즉 자신의 가능성들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끝-자리'이다. 우리에게 펼쳐진 앞날의 삶은 모두 가능성의 차원에서만 주어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무리 먼 가능성일지라도, 그것이 가능성인 한 바로 다음 순간 우리 자신의 코앞까지 닥쳐올 수 있고, 반대로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만 같던 가능성도 끝내 아득히 멀리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이데거는 **죽음의 성격들**을 다음과 같이 밝혀낸다.

① 죽음은 사람의 있음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죽음의 가능성은 '이미' 우리 자신의 코앞에 닥친 것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든 가능성의 끝이다. 죽음은 우리 자신의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음'(das Nicht-mehr-dasein-können)의 가능성이다. 사람은 그가 그 자신의 코앞에 닥쳐 있는 죽음에 직면할 때 그 자신의 가장 고유한 '있을 수 있음'(Seinkönnen)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②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의 코앞에 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연관을 끊게 한다**. 물론 이 말은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 앞에 직면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는 것을 뜻할 수 없고, 그와는 반대로 죽음이 끝내 '우리 자신'을 세상과의 모든 인연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을 뜻한다. 죽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자신의 모든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관계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 가능성'의 단절일 수밖에 없다.

③ [그러므로] 죽음의 가능성은 '**가장 극단적(äußerst) 가능성**'이다. 죽음은 모든 가능성의 끝이므로 그것의 바깥에는 어떠한 가능성도 있을 수 없다. 즉 우리는 죽음의 바깥으로 더 멀리 나아가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직접 찾을 수 없다. 여기서 '극단極端'은 죽음이 모든 끝의 끝이라는 것, 즉 죽음의 바깥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하이데거는 극단의 너머, 즉 '죽음의 저편'의 문제에 대해 예컨대 믿음에 의한 구원의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는 아직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④ 죽음이 우리 자신의 극단적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가능성을 **추월할(unüberholbar) 수 없다**. '추월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뒤따라가 그것을 앞질러 간다는 것을 뜻한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앞질러 코앞에 서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살아 있을 수 없음'의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은 우리가 살아 있는 그날까지 늘 우리 자신의 코앞에서 우리 자신을 앞질러 '거기에' 입을 벌리고 서 있다. 죽음은 우리가 그것을 결코 앞지를 수 없는 것이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아직' 닥치지 않은 것, 그러나 '이미' 코앞까지 닥쳐 있는 것이다. 그는 '죽음'을 '가장 극단적인 가능성'으로서 규정했다. 즉 죽음은 우리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즉 죽음은 우리의 가능성을 허물어뜨리겠다고 으르는 것이다. 그는 또한 '죽음'을 우리가 결코 '앞지를 수 없는 것'으로서 규정했다. 즉 죽음은 우리 자신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그것에 대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것, 즉 우리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죽음은 모든 것의 연관을 끊는 것으로서 규정되었다. 그렇다면 죽음은 우리 자신의 모든 세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다.

죽음은 저마다에게 열어 밝혀져 있다. 이때의 '저마다'가 '거기 있으미'인 한, 죽음의 열어 밝혀짐은 기분과 이해 그리고 말을 통해 일어나는 셈이다. 하이데거는 먼저 '숨의 끊김에 대한 공포(ein Furcht vor dem Ableben)'와 '죽음 앞에서의 불안(die Angst vor dem Tode)'을 뚜렷이 구분한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선 대개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사실 자체를 위장하려 한다.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도피하여 '세계 그 자체'에 '빠져들고' 만다. 이 말은 죽음이 '도피의 성격'에서도 만나질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 타인들의 죽음(Tod der Anderen)-제47절

죽음은 어쨌든 현존재의 "끝"이자 그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타인들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인가? 우리는 타인들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들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들 자신의 "전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때 타인들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이 나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내부적으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죽임인 한, 우리들에게 객관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

"타인들"은 일상적 배려 가운데 도구들과 더불어 만나지는 "세계내부적 존재자"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도구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의 존재성격을 갖는다. "타인들"은 우리들과 "함께 거기에 있음"으로서 실존하는 존재자들이다. "타인들"이 실존하는 존재자라고 한다면 그들 역시 자기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험할 수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타인들의 죽음을 수없이 경험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우리들 자신의 "전체"를 "앞서 가질" 수는 없다.

사망한다는 것은 세상[세계]을 떠난다는 것을 말하며,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와 더 이상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음을 뜻하는가? 죽은 사람은 어떤 도구가 부서져 버리는 것과 같이 망가져 버리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을 "그저 눈앞에 있음"에서 바라볼 수 있을 뿐인가?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 있음"[현존재]의 "끝"은 "눈앞에 있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장례식에 임하게 될 때 망자의 넋을 기리며, 그와의 추억을 회상하고, 망자가 남기고 떠난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그의 명복을 기원한다. 이때 우리는 이미 떠나버린 사람과 여전히 함께 있는 것이다. "고인"의 죽음, 즉 그의 현사실적인 "거기에 없음"을 통해 "고인"의 세계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유가족들에게 말건네 오고 있다. 이렇게 고인은 우리들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있다."

현존재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결코 "눈앞의 사물"이 될 수 없다. 고인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결코 그의 "끝"으로서 경험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와의 새로운 만남을 가능케 한다. 죽음을 통해 망자가 비록 자신의 "존재"를 "상실"해 버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고인의 죽음은 분명 존재의 상실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망자가 겪어야만 할 그러한 존재의 상실 그 자체에 접근할 수가 없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 "곁에 서 있을" 뿐 그의 본래적인 "끝"[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현존재의 전체성을 현상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타인들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합한 것이다. 어떤 현존재가 자신의 "끝"에 이르렀을 때, 즉 자신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에게서 그의 죽음을 제거시켜 줄 다른 현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가? 물론 누군가가 타인을 위해 대신 죽어 줄 수는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대신 죽음"이 타인을 그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수는 없다. "대신 죽음"은 일종의 "희생"이지 "죽음의 제거"가 결코 아니다. 모든 현존재는 자신의 죽음을 타인에게 대신 전가시킬 수 없다. 따라서 죽음에서는 "**대리 가능성**"이 불가능하다. 각자는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떠맡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아무리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도망친다 해도 죽음은 그의 탄생과 더불어 언제나 그와 함께하고 있다. 죽음은 본질적으로 '**저마다 나의 것**'이다.

- 끝남(Enden)-제48절

죽음은 현존재의 "끝남"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 "끝남"은 우선 "그침"이나 "끊김"을 뜻한다. **비가 그쳤다**는 것은 예컨대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길이 끊겼다**는 것은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침"으로서의 "끝남"은 "더 이상 눈앞에 있지 않음"[비의 경우]을 의미하고, "끊김"으로서의 "끝남"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됨과 더불어 비로소 눈에 띄게 되는 "눈앞에 있음"[길의 경우]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침"이나 "끊김"으로서의 "끝남"은 "눈앞에 있지 않음"과 "눈앞에 있음"만을 규정해 줄 수 있을 뿐 현존재의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음"[죽음]을 규정해 줄 수는 없다.

또 "눈앞에 있음"의 시작점에 도달함으로서의 "끝남"은 **길을 다 완성하지도 않은 채** 도로 공사를 중단한다는 의미에서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채 눈앞에 있는 것"을 규정할 수도 있고 마지막 손질과 더불어 **그림이 다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마무리"를 이루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의 끝냄이 반드시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완성되어야 할 것은 마무리를 필요로 한다. 완성은 "마무리"에 기초해 있다. 여기서의 "마무리됨"으로서의 "끝남" 또한, 그것을 통해 어떤 손안의 것이 비로소 눈앞에 있게 되는 한, 눈앞의 것이나 손안의 것만을 규정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외에도 "끝남"의 다양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바람 부는 것이 끝났다는 것은 바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식량이 끝이 났다는 것은 그것이 다 써서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라짐"이나 "다 써 버림" 또한 눈앞의 것이나 손안의 것과 관련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다. "끝남"이 위와 같은 의미들로 이해되는 한, 그것은 현존재의 "죽음"을 규정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미의 "끝남"은 손안의 것이나 눈앞의 것에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존재는 **죽음에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단순히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니며, 마찬가지로 마무리되는 것도 그리고 손안의 것으로 손질되는 것도 아니다**.

- 죽음에 대한 실존론적 개념

사람들이 비록 죽음 앞에서 등을 돌려 그것을 부인한다 해서 그들이 죽음의 확실성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참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을 뜻한다. 확신함은 현존재의 존재 양식으로서 현존재가 "...에 대해 확신하고-있음"을 일컫는다. 그리고 현존재가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확실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확실성은 확신함에서 파생된 것이다. 확신은 우리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열어 밝혀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물론 이러한 확신은 관련된 존재자의 존재양식이나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의 방향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죽음의 확실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죽음의 사실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타인들의 눈을 의식하여 겉으로는 죽음을 전혀 겁내지 않는 듯한 태연함을 가장한다. 이러한 태연함은 사람들이 죽음의 확실성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각자가 자신들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지 않은 상황 하에서 발생한다. 사람들은 죽음에의 확신을 회피한다. 사람들이 죽음의 확실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그들이 죽음이 당장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죽음이 닥쳐올 때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말에는 죽음이 어느 순간에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깔려 있다. "언젠가"라는 말은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뜻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 나중에'의 의미로 새긴다. 사람들은 죽음의 때의 정해져 있지 않음을 일상의 바쁨을 핑계로 무시해 버린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결국 일상성의 안온함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분석은 현존재를 전체로서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위한 작업이다. 일상적 현존재는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끝에로 향해 있다.' 이 끝은 '거기에 있음'의 전체를 완결 짓고 규정하는 것도, 현존재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도래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끝은 죽음으로서 어느 때라도 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죽음에로 향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신의 '가장 극단적인 가능성'에로 달려가면서 있지만, 그 가능성은 무한하지 않고 그 달려감에는 끝이 있다. 죽음은 바로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음'을 뜻한다.

'거기 있으미'는 '자기를 앞질러' 있다. 이 앞질러 달려 나감의 끝, 즉 불가능성이 곧 죽음이다. '거기에 있음'의 전체성은 '자기 앞지르기'라는 '마음 졸임'의 구조에 근거한다.

- 죽음에로 앞질러 달려가봄(Vorlaufen in den Tod)-제53절

"죽음에로 앞질러 달려가봄"은 "죽음에로 향해 있음"을 의미한다. "죽음에로 향해 있음"은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도록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죽음에로 향해 있음"은 "죽음에 대한 셈[계산]"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보통 죽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다. 죽음에 대한 "셈"으로서의 "죽음에로 향해 있음"은 죽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즉 죽음의 현실화를 철저히 예상하고 통제하려 한다.

"죽음에로 향해 있음"은 "죽음을 기대함"과 같은 것을 의미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 즉 "가능적인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게 될지", 만일 그렇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될지를 염두에 둔다. 따라서 "기대함"은 "가능적인 것의 눈앞에 있게 됨"을 "기대함"이다. "죽음에로 향해 있음"은 "죽음을 기대함"으로서 이해되어선 안 된다.

"죽음에로 향해 있음"은 "죽음에로 가까이 감"을 뜻한다. "죽음에로 가까이 감"은 "죽음에로 앞질러 달려가 봄"이다. 죽음은 우리가 우리들에게 앞서 열어 밝혀져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앞질러 달려갈 때 만나게 되는 모든 존재 가능성들의 "끝" 또는 "마지막 가능성"이다. 죽음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가능성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이다.

현존재는 죽음에로 앞질러 달려감으로써 더 이상의 실존의 가능성이 불가능해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그 자신 앞에 닥쳐옴을 이해하게 된다. 죽음의 가능성 속에서는 자기를 앞질러 달려갈 "현존재"도 또 그 현존재가 앞지를 수 있는 "자기"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죽음에서 현존재는 앞지를 수 있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자신에게는 없음을 깨닫는다. 죽음에로 앞질러 달려가는 현존재는 "더 이상 앞지를 수 없음"의 사실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자신의 모든 가능성의 "끝"으로서 받아들인다. 앞질러 달려감으로

써 현존재는 "자기 포기"의 가능성을 열어 밝히게 되며,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 즉 이미 도달된 가능성에로의 고착을 깨트려 버릴 수 있다. 현존재는 앞질러 달려가면서 자신의 죽음에 의해 규정된 가능성에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죽음에로의 자유는 기존에 달성된 모든 가능성들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며, 따라서 현존재는 이제 비로소 모든 가능성들을 본래적으로 즉 자기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성에서부터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앞지를 수 없는 죽음의 가능성에로 앞질러 달려감은 이러한 가능성 이전에 놓인 모든 가능성들도 함께 열어 밝히며, 따라서 "앞질러 달려가봄"에는 현존재를 "전체적으로" 앞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 있다.

■ 양심에 대하여

"양심(Gewissen)은 '거기에 있음'의 현상으로서 '눈앞에 나타나 있는 벌어진 일'(Tatsache)이 아니다.

"양심은 '어떤 것'을 알아듣게(이해) 해 준다. 즉 열어젖힌다. 양심은 부르는 소리(Ruf/외침)로 드러난다(enthüllt). 부름(das Rufen)은 말의 한 모습(ein Modus der Rede)이다. 양심의 부름(der Gewissensruf)은 거기있으미를 자신의 제것스런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음'에로 불러낸다(Anruf/호출)는 성격을 갖는데, 그 불러냄의 방식은 가장 제것스런 '탓이 있음'에 대해 호소하는(呼訴/Aufruf zum Schuldigsein/탓이 있다는 사실을 불러일으킴) 방식이다."(360)

"양심의 부름에 상응하는 '하나의 가능한 들음'(ein möglches Hören)이 있다. 불러내는 소리를 알아들음(Anrufverstehen)은 '양심갖길원함'(Gewissenhabenwollen)으로 드러난다. 이 '양심갖길원함'에는 우리가 찾고 있는 바, 즉 '자기 자신으로 있음'의 선택에 대한 실존적 선택함(existenzielle Wählen der Wahl eines Selbstseins)이 놓여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함을, 그 실존론적 얼개(구조)에 맞추어 결단성(決斷性/Entschlossenheit)이라 이름한다.(360)

양심은 유일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침묵함의 모양새로(im Modus des Schweigens) *말할*(redet) 뿐이다. 그렇다고 양심의 소리가 들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커녕 양심은 '불러내져 호소를 듣고 있는 거기있으미'로 하여금 그 자신에 대해 침묵하도록 강요한다.(Verschwiegenheit seiner selbst) 부르는 소리 가운데 불려진 것이 말로 정식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양심 현상을 마치 비밀에 가득 찬 어떤 소리처럼 무규정적인 것으로 치부해선 안 되고, 오히려 양심의 침묵은 '불려진 것'을 이해하기[알아듣기] 위해 일종의 전달이나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365-366)

'거기있으미'는 양심에서 자기 스스로를 부른다.(ruft im Gewissen sich selbst) ⇒ [이 말은 거기있으미가 부르미이자 동시에 부름받으미라는 것을 뜻한다.] 거기있으미가 부르미이

자 동시에(zumal) 불러내지미(der Angerufene)라는 대답은 존재론적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 불러내진 자로서의 거기있으미는 부르는 자와 '거기에'(da) 다르게 있지 않은가?(367)

부름소리(der Ruf)는 계획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 계획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비되지도(vorbereitet) 의도적으로 실행되지도 않는다.

'그것'(Es)은 부른다.

양심(⇒'깨우침')은 마음졸임의 부름소리로 열린다.(offenbart sich) 부르미(der Rufer)는 '던져진 채'(in der Geworfenheit)(이미-...에-있음/Schon-sein-in) 자신의 '있을 수 있음'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기있으미이다. 불리미(der Angerufene)는 자신의 가장 고유한 있을 수 있음(자기를 앞질러/Sich-vorweg)에로 호소(呼訴)를 당한(aufgerufen/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거기있으미이다. 그런데 거기있으미는 '사람들 속으로 빠져듦'(Verfallen in das Man)(마음쏟는 세계 가운데 이미 있음/Schon-sein-bei der besorgten Welt)에서 [빠져나오도록] 불러냄(Anruf)을 통해 부르짖음을 당한다.(aufgerufen) 양심[깨우침]의 부름소리, 즉 양심[깨우침] 자체[스스로]의 존재론적 가능성은 '거기에 있음'(Dasein)이 그 있음의 바닥에서 마음졸임이라는 데 놓인다.(371)

부르미는 세계적으로 보자면 '아무도 아닌 자'(Niemand)이다.

양심을 마음졸임의 부름소리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연스런 경험'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양심은 흔히 질책하고(rügt) 경고하는(warnt)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장 고유한 있을 수 있음'을 회복하도록 *호소하는 자(Aufrufer zum...)*이기도 하다. '나쁜'(schlecht) 양심과 좋은(gut) 양심은 마음졸임의 불러냄으로서의 양심에 기초한다.(372)

■ 빚에 대하여

양심의 부름소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빚(schuldig/죄)이 있다는 사실. 또는 "좋은"(gutes) 양심으로서 "죄 지은 게 없다"(keiner Schuld bewußt)는 사실.

일상적 상식에 따를 때 "빚(죄)이 있음"(Schuldigsein)은 가장 익숙하게는 ① "빚지다"(schulden), 즉 "어떤 이에게서 어떤 것을 계산대에 올리다"(bei einem etwas am Brett haben/ 누군가에게 빚을 얻다)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다르미에게 그가 요구하는 바를 되돌려주어야(zurückgeben/ 되갚다) 한다. "빚을 얻음"(Schulden haben)으로서의

"빚이 있음"은 갖춤, 가져옴과 같은 마음쏟음의 영역에서(im Felde des Besorgens als Beschaffen, Beibringen) 다르미와 맺을 수 있는 '더불어 있음'(Mitsein mit Anderen)의 한 방식이다. 이러한 마음쏟음의 딴가지들(Modi/모듭들)로는 빼앗음(Entziehen), 빌림(Entleihen), 압류함(押留/ Vorenthalten), 도둑질함(Rauben) 들과 같이 다르미의 소유권(Besitzanspruch)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죄가 있음'은 마음쏟을 거리(Besorgbares)와 연관된다.(376)

다음으로 '빚이 있음'은 ② "...에 대해 책임이 있다"(schuld sein an)는 보다 넓은 뜻매김(die weitere Bedeutung)을 갖는다.[1] 즉 어떤 것의 원인임, 즉 장본인임(Ursache- und Urheber-sein) 또는 어떤 것을 야기한 유발자임(Veranlassung-sein)의 뜻을 갖는다.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떠맡음"(Schuld haben an...)의 의미에서 우리는 다르미에게 어떤 "빚을 지거나" "빚이 있게" 되지도 않은 채 "빚이 있을" 수 있다. 거꾸로 우리는,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이 없이 다르미에게 어떤 빚을 질 수 있다. 한 다르미가 다르미에게서 "나를 위해" "빚을 낼"(Schulden machen)[2] 수 있다.(376)

우리가 ③ "죄를 저지르다"(sich schuldig machen)[3]는 말로 부르는 행동,[4] 즉 '빚을 얻는 것'(돈을 빌림/ Schuldenhaben)에 대한 책임을 떠맡음으로써(durch das Schuldhaben an) 권리(ein Recht/ 법)를 침해하여 처벌을 받는 행동을 규정할 수 있다.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권리] 요구가 반드시 소유와 관련될 필요는 없지만, 그 요구는 '공적인 서로 더불음'(das öffentliche Miteinander) 일반을 규제할 수 있다.(regeln) 그러나 권리 침해(Rechtverletzung)에서 "죄를 저지르다"는 말은 "다르미에 대해 죄를 저지르게 된다"(Schuldigwerdens an Anderen)의 성격[얽이]을 가질 수 있다.(377)

"빚이 있는"이라는 말의 형식적 실존론적 이념(die formal existenziale Idee): 아님을 통해 규정된 있음을 위한 근거임(Grundsein für ein durch ein Nicht bestimmtes Sein), 즉 *'아무 것도 아님의 근거임'*(Grundsein einer Nichtigkeit)이다.

'거기있으미'는 마음졸임으로서 끊임없이(ständig) -- 그가 있는 동안 -- '거기에 있음의 "사실"'(sein "Daß")이다. 이러한 '있는 것'으로서 -- 즉 유일하게 '거기에 있음'을 넘겨받은 '있는 것'으로서, 달리 말해 '거기있으미'이고, 따라서 나가설 수 있는 '있는 것'으로서(Als

---

[1]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 도의적 책임 또는 의무.

[2] "책임"으로서의 "죄"는 "빚으로서의 죄"보다 더 넓은 뜻매김을 갖는다.( )

[3] 어린아이들의 장난질로 말미암은 '잘못'도 '죄'이다. 이에 대해서는 꾸지람이나 매맞기 등의 벌이 가해진다.( )

[4] ein Verhalten: 행동관계, 고정 관념에 따른 행동, 버릇이 된 행동, 행동버릇, 더 이상의 새로운 변화가 멈춰버린 행동.

dieses Seiende, dem überantwortet es einzig als das Seiende, das es ist, existieren kann) -- 의 거기있으미는, 나가서는 한, 자신의 '있을 수 있음'의 근거이다. 비록 거기있으미가 그 근거를 스스로 놓은(gelegt) 게 아닐지라도, 거기있으미는 그 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ruht in seiner Schwere)(379)

거기있으미는 스스로 자신의 있음의 근거가 아니다. 그럼에도 거기있으미는 분명 '스스로로서 있음'(Selbstsein)으로서 근거의 있음(das Sein des Grundes)이다.(380)

그 있음이 마음졸임인 그러한 있는 것은 '행위사실적 죄'의 짐을 지울[짊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있음의 근거에서 죄가 있다. 이 '죄가 있음'은 거기있으미가 행위사실적으로 나가서면서 죄가 있을 수 있기 위한 있음론적 조건[가능케 하는 것( )]을 준다. 이러한 본질적 차원에서의 '죄가 있음'(Schuldigsein)은 동근원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음과 나쁨'을 위한 가능성의 나가섬론적 조건이다. 즉 도덕성 일반과, 도덕성의 행위사실적으로 가능한 형상화(für das "moralisch" Gute und Böse, das heißt für die Moralität überhaupt und deren faktisch mögliche Ausformungen)의 조건이다. 도덕성을 통해 근원적인 '죄가 있음'이 규정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도덕성을 위해서는 '죄가 있음'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382)

'죄가 있음에로 호소함'은 내가 그때마다 이미 거기있으미로서 그것인 그 '있을 수 있음' 앞에로 소환함을 뜻한다.(ein Vorrufen auf das Seinkönnen, das ich je schon als Dasein bin)(384)

■ 맺음말

죽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가능성을 향해 있음'이고, 양심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깨닫고 있음'이다. 죽음과 양심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 '아직 가능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 속한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의 있음은 우리에게는 '빚'이다. 그것은 우리가 갚아야 할 선물이지만, 받은 곳을 꼬집어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갚을 길이 없는 것'이다. 빚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살아왔으며,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갈 것이라는 데 있다. 사람에게는 그의 있음이 곧 빚이다.

사람은 스스로의 있어왔음과 있음 그리고 있을 수 있음 때문에 마음을 졸일 줄 알고, 그 때문에 마음을 쓸 줄도, 더 나아가 마음을 쏟을 줄도 안다. 하이데거가 말하려는 양심(Gewissen)은 이 세 줄기 앎(Wissen)을 한데 아우르는 것이다. 마음이 졸여지는 까닭이 자기 자신의 있을 수 있음 때문인지, 아니면 타인의 있음 때문이진, 그것도 아니면 도구의 쓰임 때문인지는 그때마다 결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마음졸임의 까닭을 스스로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길이 곧 '스스로 생각하기'의 길이다. 이 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실천은 빚 갚음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자신이 진 빚을 그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성실히 갚고자 할 것이다. 갚을거리로서의 이 빚은 우리가 사람으로 있는 동안 우리에게 떠맡겨진 짐과 같고, 그 빚을 갚는 길은 그 빚에 값하는 일을 하는 일이다. 자신이 진 빚을 온힘을 다하여 갚아나가는 게 곧 양심이다. 바른 마음으로서의 양심은 스스로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그 자신이 짊어진 빚을 갚고자 결단하는 마음을 뜻한다.